투데이 칼럼

정확한 발음의 스피치가 인격자를 만든다

김 양 옥
한국스피치리더쉽컨설팅 대표

현대는 소통의 시대요, 이미지 시대이고 정보화시대이다.

그러므로 이전 시대에 비해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자기 의사를 표현해야 할 기회가 늘어나고 또 남과의 소통이 더욱 긴밀해졌기 때문이다. 정말 우리는 말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변가(多辯家)이자 달변가(達辯家)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직장에서 우리가 말하기에 할애하는 시간이 얼마인가를 따져보라. 아침부터 크고 작은 회의가 이어지고, 또 업무상의 대화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루어진다.

그런데 궁금한 점은, 말을 많이 하는데 정말 말을 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대체로 말문이 터지면 막힘없이 청산유수로 말을 하는 것을 말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이것도 아주 잘못된 생각은 아니나, 좀 전문적으로 말하면 핵심 내용을 정확히 표현해 낼 줄 아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이다. 이때 청산유수의 달변이면 더 좋겠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럼, 하고 싶은 내용(단어)을 또박또박 정확하게 표현해 내려면 무엇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 잘 알고 있듯이, 단어를 올바로 선택해야 하고, 또 그 단어를 어법에 맞게 잘 배열해야 한다. 그리고 문장의 요소요소를 간격을 두어 입을 크고 바르게 하여 정확하게 발음해야 한다.

말 잘하는 여러분은 과연 이런 조건을 모두 갖춘 채 말을 하고 있는지, 다음 문장을 통해 한번 시험해 보라. 특히 '닭을, 닭은, 닭이'에 유념하여 발음해 보라.

'닭을'을 '다글'로 읽었는가 '달글'로 읽었는가, '닭은'을 '다근'으로 읽었는가 '달근'으로 읽었는가, '닭이'를 '다기'로 읽었는가 '달기'로 읽었는가. '닭' 뒤에 모음이 오는 환경이므로 차례로 '달글, 달근, 달기'로 발음해야 옳다. 물론 '닭과, 닭처럼' 등과 같이 'ㄹ' 받침 뒤에 자음이 오는 환경에서는 '닭'을 '닥'으로 발음해야 한다.

'ㄹ'과 같은 겹받침의 발음은 꽤나 까다롭다. '넓다, 밟다, 넓죽하다, 읊고'를 한번 발음해 보라. 차례로 '널따, 밥따, 넙쭈카다, 읍꼬'로 발음해야 한다. 표준어 규정의 표준 발음법에서 겹받침의 발음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자신이 없는 사람은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발음쯤이야 하고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발음 때문에 의미 파악이 어렵게 될 수도 있어 조심해야 한다. 영어 발음에 들이는 노력의 반만 기울여도 우리말 발음 문제는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앞의 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표준 발음만이 아니다. 표준어 선정에서도 오류를 범하고 있다. '닭도리탕'은 표준어가 아니어서 '닭볶음탕'으로 바꾸어야 한다. '닭도리탕'의 '도리'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고도리(고스톱)'의 '도리'와 같이 '새(鳥)'를 뜻하는 일본말이다. '닭'도 일종의 '새'이니 '닭도리탕'은 같은 의미를 지니는 한국어와 일본어가 중복된 희한한 단어가 된다. 아무리 익숙해진 단어라도 일본어의 잔재가 들어 있는 단어를 굳이 표준어로 삼을 이유는 없다.

말을 잘한다는 것에는 표준어를 선정하여 그것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공적인 자리에서 표준어를 잘 선택하여 쓰고, 또 그것을 정확히 발음해야 말을 잘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교양인이라는 평도 받을 수 있고 똑똑하고 당차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어 교사 가운데 20%정도만이 표준어를 제대로 구사한다고 하니 일반 대중이야 어떻겠는가!

우리말 올바른 사용방법 터득하여 교양인으로 인격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보자.

사 설

새해 도민 모두의 희망 만들기

새해 전북도와 도민의 희망 만들기가 계속돼야겠다. 지난해 희망 만들기 작업이 많았던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새해들어서도 희망 만들기는 계속 돼야 한다.

전북 지역에 희망 만들기 작업이 꾸준해야할 이유는 많다. 희망 만들기가 단순히 덕담 차원을 넘어서 가난한 서민들과 영세민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달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새해 많은 바람과 기대가 넘치는 이때, 함께 가는 희망 만들기는 매우 중요하다. 전북도는 진취적인 기상으로 지역 사회에 더욱 생동감을 주어야 한다.

그늘진 곳에는 따뜻함을 더해 분위기를 일신해야 한다. 희망 만들기는 부자들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가난한 서민들과 영세민을 위해서는 더욱 필요하다. 지금 한겨울이라서 하는 말이지만 함께 나누려는 정신태도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지난 연말에도 어김없이 나타나 6천만원이 넘는 거액을 희사하고 남몰래 몸을 숨긴 '전주 노송동 천사'의 18년 개근 사랑은 미래를 밝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에 충분하다.

해마다 연말 때면 도내의 뜻있는 이들은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나섰다.

달동네에 사는 독거노인을 위해서 공무원과 학생들이 길게 늘어서서 연탄을 배달해주고, 여성단체 회원들이 소년 가장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한 것은 그 고마운 예들이다. 사실이지 전북지역의 인심은 후덕하기로 정평이 나있다.

다른 지역보다 살기가 빠듯함에도 이웃돕기에 인색하게 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초인 지금도 그같은 희망 만들기는 계속 되리라는 믿음이다.

새해 전북의 희망 만들기와 관련해서 모두의 동참이 필요하다. 누구는 참여하고 누구는 빠져도 되는 것이 아니다.

'어금니 아빠'였으나 성금을 함부로 낭비한 이영학이나 어린 딸 고준희 양을 죽이고 내연녀와 함께 시신을 유기한 그 따위 못된 인간 때문에 상처받아서는 안된다. 그들 때문에 사랑이 식어야할 이유는 없다. 사랑의 온도탑은 오늘도 그것을 호소하고 있다. '전주 노송동 천사'의 꾸준한 선행을 본받아 적극적으로 어려운 이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우리 지역이 웰빙 고장이 되도록 올 한해도 희망 만들기가 큰 실적을 거두었으면 하는 바이다.

전북도의 핵심과제와 실천 전략

전북도가 3대 핵심 과제를 발표한 지 이제 상당히 지났다. 전북도가 밝힌 3대 핵심과제는 농생명산업과 관광산업과 탄소산업이다. 전북도는 8대 실천전략도 발표했는데 다 중요한 것들이다. 3대 핵심과제는 그 하나 하나가 지역 발전을 위한 것이고 8대 실천전략은 도민의 살림과 복지를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하나 하나마다 도민들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들이다.

전북도는 핵심과제와 실천전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힘차게 뛰어야 한다. 핵심과제와 실천전략을 발표할 때도 그랬지만 새해인 지금은 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새해 벽두 3대 핵심과제와 실천전략을 다시 점검함과 동시에 그 진척 상황을 체크해야 한다. 발전 핵심과제들을 역동적으로 밀어부쳐야 한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뜻을 강고히 해야 한다.

발전의지는 중단이 아니라 지속적인데서 나온다. 그리고 말보다 행동 표출에서 나온다.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은 크든 작든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날에도 여러 번 언급했고 또 지적한 바 있거니와 새만금 개발사업이 도내 건설사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으니 유감이다. 이것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들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당초 청사진은 크고 화려한데 손에 쥐어진 것이 별로이니 하는 말이다.

전북도는 지역 발전과 관련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 3대 핵심과제와 8대 실천전략을 말했으니 앞으로 그것을 성취하는 일만 남았다. 전북도는 그 성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전진해야 한다. 전북도의 핵심과제와 실천전략에 도민들의 기대가 크다. 도민들은 올 한해 전북도가 무언가 하나라도 큰 성취를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다.

독자제언

인권과 안전 존중으로 집회시위 패러다임 전환

요즘 매스컴을 보면 예전의 집회시위 양상과는 상이하게 불법 폭력이 사라지고 자신의 주장을 피켓이나 프래카드에 담아 평화적으로 행진하는 집회 모습으로 변모됐음을 실감할 것이다.

이는 집회시위의 전 과정의 질서를 주최 측 자율에 맡겨 관리케 하고, 집회시위 전과정에서 법질서 준수와 안전유지를 위한 책임을 주최 측에 부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한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주민 불편이나 교통 소통 방해 등을 이유로 집회를 원천 봉쇄하거나 행진을 막는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됐다.

이제부터 경찰은 평화적 비폭력 집회에 대해 최대한 보장하고 경찰력 행사를 절제하기로 했다.

이는 집회를 통제·관리의 대상이 아닌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실현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변화이며 집회와 시위는 본질상 주민 등 제3자에 대해 일시적인 불편이나 생활 상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주최측이 평화적 의도를 밝히고 실제로 비폭력적으로 진행된다면 최대한 보장키로 했다.

지금까지 소음이나 교통 불편 등 주민 민원을 이유로 집회를 사전에 원천 봉쇄해 온 관행을 없애겠다는 의미다.

또 집회 현장에서의 상징물처럼 여겨지던 살수차와 차벽 설치를 최대한 지양하고 집회 신고 절차 간편화 일환으로 온라인 집회 신고 시스템이 도입됐다.

아울러 집회 금지통고는 원칙적으로 불가해 집시법 상 금지통고제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허가제로 악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금지통고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공개하기로 했다.

앞으로 인권과 안전을 존중하면서 경찰권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집회 주최 측 모두 자율과 책임하에 성숙한 집회시위가 이뤄지도록 다같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재옥 부안경찰서 경비작전계

독자제언

소방출동로는 생명선

"소방출동로는 생명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다

화재 등 각종 재난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대응이다.

화재를 비롯한 구조,구급현장에 5분이내 현장도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5분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만 화재가 최성기에 이르는 것을 막을수가 있고, 더 시간이 지체된다면 인명과 재산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심정지 환자의 경우에도 5분이내에 응급처치를 해야만 뇌손상을 최소화하고 소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5분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초동조치를 하지 못하면 재산 피해는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자칫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현장에 도착해 신속하게 초기대응을 하는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출동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는 불법 주·정차 및 교통체증 등이 주요원인이며, 실제로 현장으로 출동하다 보면 이로인해 신속하게 진행하지 못해 중앙선을 침범하다가 교통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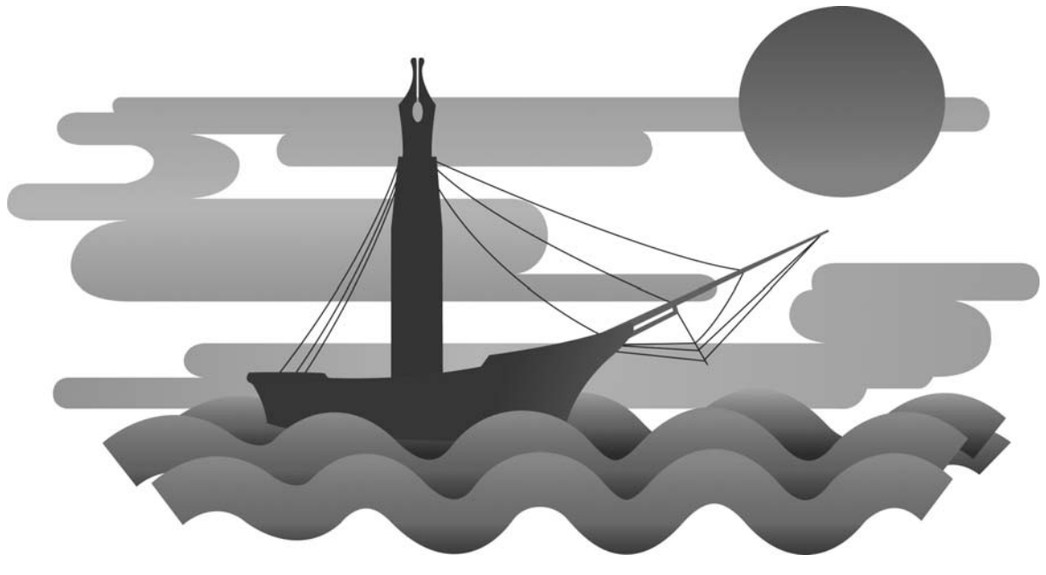
더욱이 주택 밀집지역과 같은 협소한 진입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더 많을 경우에는 눈앞에 있는 현장을 보고도 진입하지 못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

위와 같은 어려움들로 인해 소방관서에서는 소방차량 길 터주기 캠페인,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및 소방통로 확보훈련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시민의식은 아직도 제자리걸음 상태다.

따라서 운전자 스스로의 소방차량에 대한 양보운전과 소방출동로 확보 등 시민의식의 동참이 절실하며 소방차량 출동로는 나와 내가족, 내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준다는 것을 인식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안전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종길 고창소방서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 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